

통일 칼럼

북한 전승절 대대적 행사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 주장한다. 73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5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 아닌데도 열병식과 기념 공연을 잇달아 개최하며 체제 결속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북중 친선을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북중 밀착을 과시하는 동시에 양국의 친선 관계를 미래세대로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평양체육관 앞 광장에는 6·25전쟁 참전 노병과 평양 시민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까지 자리했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해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5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 아닌데도 북한은 올해 7·27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다. '전승절' 저녁에는 약식 열병식도 거행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첨단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6·25전쟁 당시 북장을 갖춘 군인들



정복규

논설위원

이 참전 부대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그날의 분위기를 재현했다. 뒤를 이어 현재의 북한군 군복을 갖춰 입은 육·해·공군 장병들도 행진에 동참했다.

'전승절 기념 공연'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처음으로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젊은 시절 리설주를 속 빼앗은 모습으로 등장한 김주애는 초청된 여성 노병을 두 팔 벌려 안는 등 원숙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가 하면 껍속 말도 나누는 등 다정한 부녀 사이를 과시했다.

공연을 보다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는 김 위원장과 달리, 주애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뚫듯이 응시해 묘한 대비를 이루기도 했다.

주애는 전날에도 항일 빨치산과 6·25전쟁 전사자 묘역들을 연이어 참배하며 차세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했다. 리설주보다 키가 커진 주애는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이동했으며 국가 연주 등에서도 대열 정중앙에 위치했다.

북한이 상징성 큰 참배 행사에서 주애를 의전의 중심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가족 동행을 넘어 감춰 일가의 권력 계승 정통성과 체제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정치적 연출이

란 분석이다.

북한이 올해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주애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킨 것은, 북중 간 친선과 우의를 미래세대로 계승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행사에서 북중 관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김 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유해가 안장된 열사능원을 찾아 중국 마오쩌둥의 장남 묘소에 무릎 꿇고 헌화했다.

'전승절 기념 공연'에서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중국 노래를 선보인 것도 예년과 달랐던 점이다.

북중 관계가 긴밀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선전하는 한편,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와 밀착을 하더라도 중국을 놓칠 순 없다는 북한의 정책적인 시계추 외교, 등거러 외교의 메시지라고 판단된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독자재언

시민의 따뜻한 응원, 경찰을 더욱 강하게 한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때로는 애증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2를 떠올리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시민입니다. 그만큼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장유기 사건으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의 잘못이 모든 경찰관의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경찰관들은 폭염과 폭우를 마다하지 않고,

밤낮없이 범죄 예방과 교통관리, 실종자 수색,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부정적인 소식으로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의 사기는 곧 치안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신뢰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을 위한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못한 경찰은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실한 경찰관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필요하지만, 응원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김현 김제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안심하고 떠나는 여름휴가, 빈집 예방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피서지로 떠나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동안 비어 있는 집을 노리는 빈집털이 범죄 위험 또한 커지는 시기다. 설레는 휴가지에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려면 떠나기 전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가철 빈집털이는 주로 문단속이 허술한 집이나 택배와 우편물이 쌓여 장기간 집을 비운 티가 나는 곳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고층 아파트라든가 창문을 열어두고 외출하면 옥상이나 가스배관을 통한 침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경찰은 휴가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밀집 지역과 다세대 주택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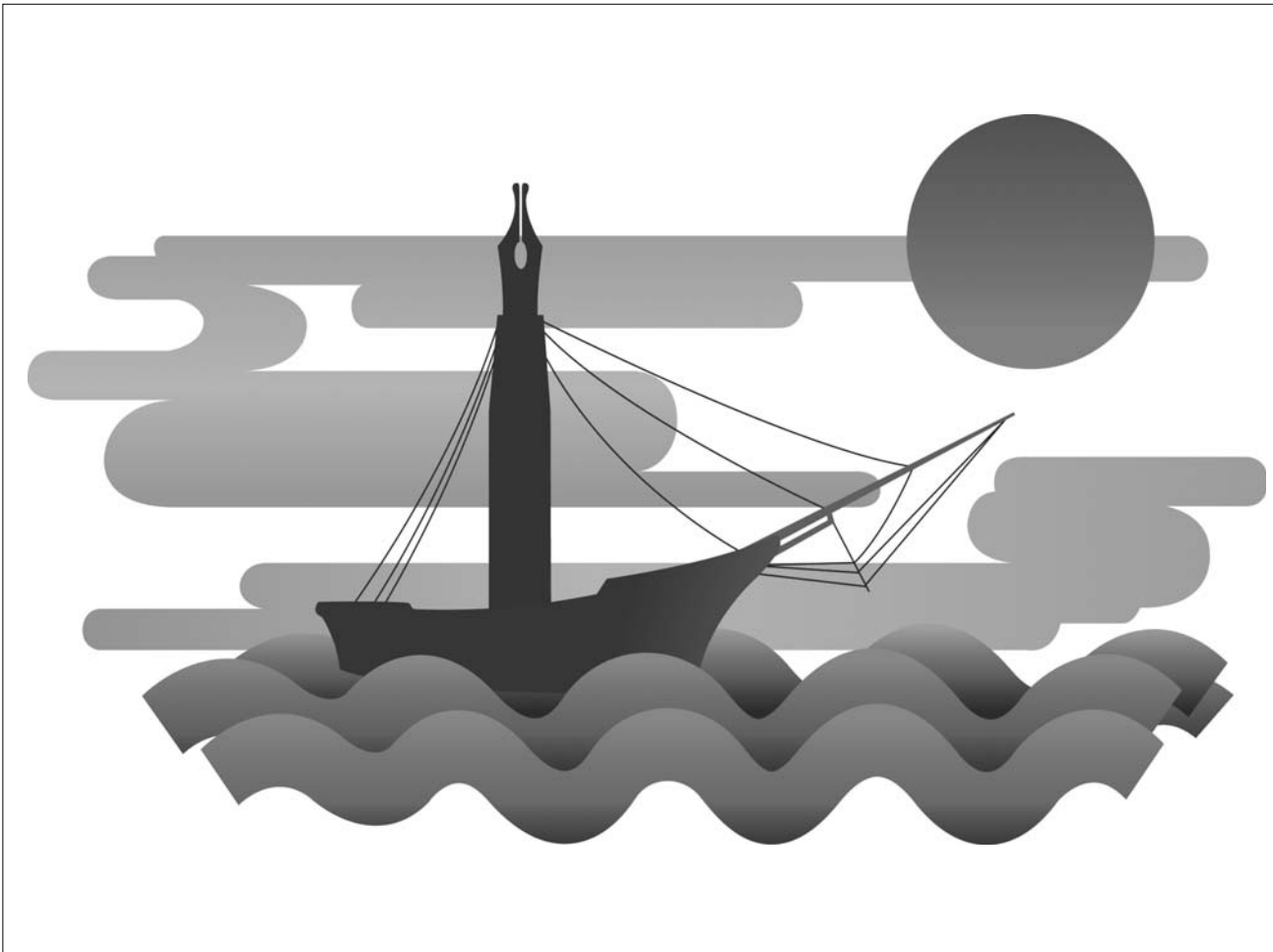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받아 순찰하는 탄력순찰 서비스와 장기 외출 시 집 주변을 집중 순찰해 주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운영하며 치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활 속 실천이다. 외출 전 문단속은 물론 지층과 고층 모두 창문을 완전히 잠가야 한다. 신문이나 택배 등 배달물은 사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이웃에게 수거를 부탁하고 TV 및 조명의 예약 기능을 활용해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주의와 관심으로 집 안 안전을 먼저 챙긴다면 더욱 안심하고 뜻깊은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